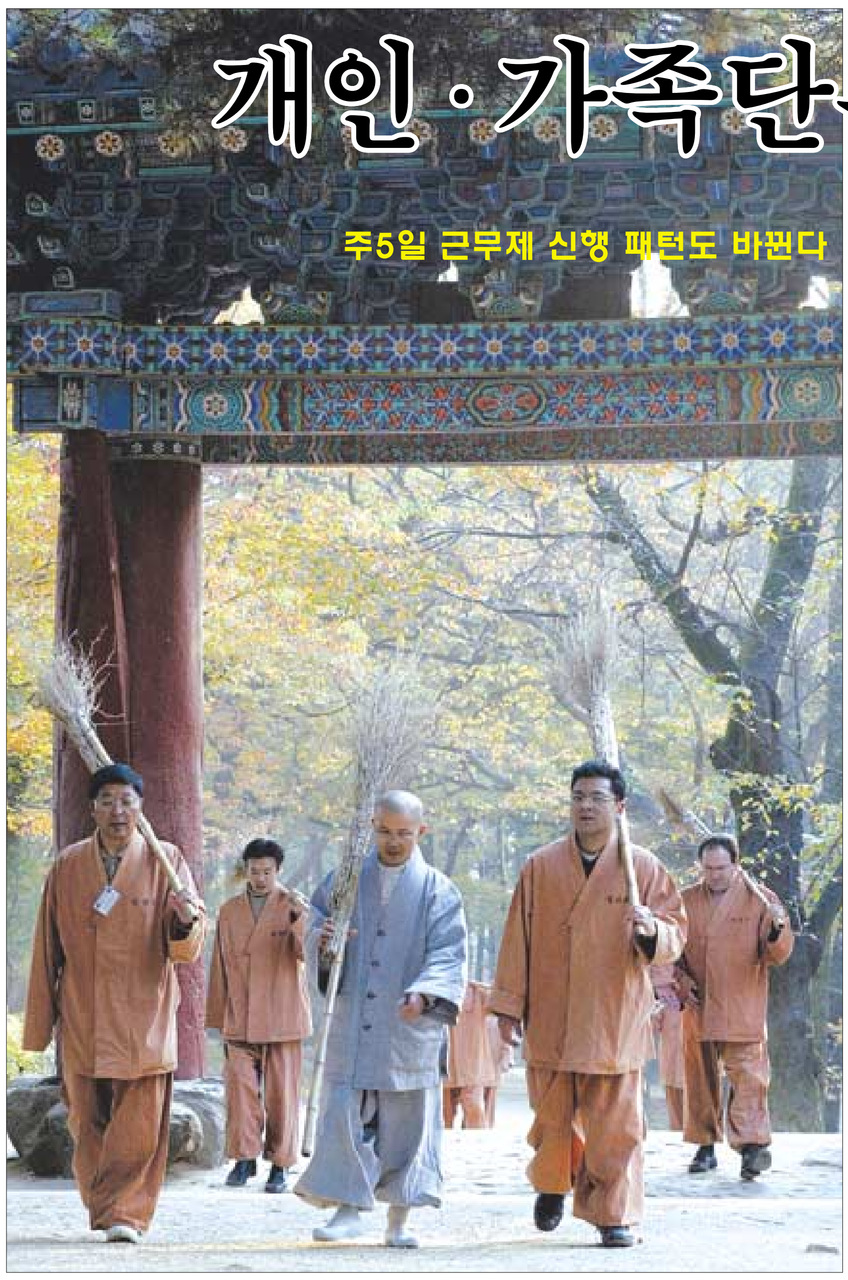
개인·가족단위 신행 늘어날 듯

주5일 근무제 신행 패턴도 바뀐다

7월 1일 300명이상 사업장·공공기관으로 확대



직장불자들은 2002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가족이 함께하는 신행패턴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주말을 이용해 직장인들이 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한국은행 불자모임인 불이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평소 다니는 원찰이 없는 안구용씨(은행국 안정분석팀). 그는 2002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주말이면 평소 가보고 싶었던 사찰을 참배하거나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일들이다.

안구용씨는 "주5일 근무제로 달라진 생활 가운데 가족과 함께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성지순례·봉사 등 계획 많이 세워 사찰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해야

2002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한 금융업계의 경우 직장신행단체의 활동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법회 등 직장단체의 활동이 평일에 집중돼 있어 주5일 근무제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다. 대신 주말을 이용하는 성지순례, 봉사활동 등은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주5일 근무제가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직장인불자들의 신행패턴이 어떻게 바뀔지 비상한 관심을 끈다. 특히 이번 확대대상에는 직장신행단체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공무원불자들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직장 신행단체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250여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불자회는 불자회별 자율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대전시청 공무원불자회의 경우 휴일을 이용한 봉사활동과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상 회원들의 자율적인 시간 활용에 맡기고 있다.

전형진 대전시청 불자회 총무는 "직장불자회가 휴일을 중요시하는 직장인불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 복지시설 봉사, 원찰내 신행활동 등 회원의 개인적인 신행활동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직장인들의 근무패턴 변화는 불자들의 신행패턴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는 신행·포교의 일선이라 할 수 있는 사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로 인해 직장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꾸준히 형성돼 왔다. 산중사찰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부분적으로 시행된 2002년부터 템플스테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휴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직장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신도조직 활용시스템 구축 등이 선행돼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은 "주5일 근무제가 완전 시행되는 2008년까지 도심사찰과 산중사찰, 가족과 개인 등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한다"며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사찰을 찾는 것처럼 사람들의 발길을 사찰로 향하도록 하는 일은 결국 불교 내에 그 해답이 있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우리단체 이사람

김장근

대구불교산악회 회장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한다는 대구불교산악회 김장근 회장(49·대구 동구청 나비생태원 팀장·사진)은 10년 전 대구에서 처음으로 불교산악회를 창립하고 전국산악인연합회를 결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장본인이다.

김 회장은 군 전역 후 원만사 청년회원으로 활동했다. "놀 줄도 모르고, 특기도, 취미도 없어 불교청년회 활동을 열심히 한 것 뿐"이라는 김회장. 그러나 24년간 이어온 신행활동이 결코 적지 않다. 원만사 청년회장을 거쳐 대불청 대구지구장, 동화사 사무국장을 역임했고, 대구불교대학총동문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직장에서도 동구청 일심회 총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김회장이 무엇보다 마음 쓰이는 곳은 대구불교산악회다.

전국불교산악인회 창립 주도 지역 환경감시·대외활동 앞장

대구불교산악회는 1995년 3월 대구지역 불교청년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능금불청산악회'로 창립됐고, 일반 신도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대구불교산악회로 개명했다. 이후 김회장은 1997년 6월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창립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대구불교산악회는 1996년 7월 진천 보탑사에서 녹색환경감시단을 발족해 사찰환경 수호와 대구지역 환경지킴이로 활동했고, 매월 셋째주 일요일 정기산행을 통해 신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재보호에도 한몫을 담당했다. 또, 월1회 무료 급식소봉사활동과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대외봉사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대구불교산악회는 6월 12일 동화사에서 제8차 전국불교산악인대회를 개최해 회원 배가와 조직확대를 위한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번에도 김회장은 새벽 3시까지 수많은 업무를 감당해냈다. 그러다보니 김회장의 집은 온통 서류뭉치들로 가득하다. 심지어 고등학생 아들까지 나서 2시간이나 걸려 불자들에게 일일이 안내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6월 12일 제8차 전국산악인대회는 전국 2000여명의 불자산악인이 모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그러나 김회장은 그동안 수고한 회원들을 격려하며 또 뒷정리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김회장은 최근 가뜩이나 마른 체구가 더욱 말랐다는 소릴 자주 듣는다. 그러나 산을 오르는 수행자 김회장은 이제 몸의 살 대신 마음의 살을 찌워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배지선 기자

불자의원들 '신행 up' 분주

우리당, '이타회' 결성 … 정각회, 활성화 모색

열린우리당 이타회는 6월 24일 창립법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조용수 기자

열린우리당 불자의원들의 모임인 이타회가 결성되고 국회 정각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조직 활성화에 나서는 등 불자의원들의 행보가 빨라져 주목된다.

국회 정각회(회장 이용희)는 6월 3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관문사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창립 1주년 기념 조찬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박세일 부회장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인 부회장을 새롭게 선출하는 등 조직개편과 함께 열린우리당 불자의원 모임인 이타회 창립에 따른 신규회원 확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창립 이후 이렇다할 활동을 펼치지 못했던 정각회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된다.

정각회는 이날 조찬법회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으로부터 '불자의원의 역할과 신행'에 대한 법문을 들을 예정이다.

6월 24일에는 열린우리당 이타회(회장 윤원호)가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등 주요 종단 대표를 비롯해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등 정관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했다.

이타회에는 윤원호 회장을 비롯해 최재성 의원(간사), 이용희 의원, 강창희 의원, 이영호 의원 등 불자의원들과 친불교적인 성향을 보여온 의원 20여명이 가입했다.

박봉영 기자

자비실천하는 모범단체 되길…

홍성경찰서 불자회·울산 운불련 창립

충남 홍성경찰서 불교회와 운전기사불자연합회 울산지역회가 창립됐다.

홍성경찰서 불교회는 6월 26일 홍성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창립법회를 열었다.

예산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과 공주 갑사 주지 장곡 스님, 회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초대회장에 손정희 경사(경무과), 총무에 장형훈 경사(오관지구대)가 선출됐다.

홍성경찰서 불교회는 앞으로 월1회 정기법회, 성지순례, 불우이웃돕기 등의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앞서 6월 23일에는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울산지역회가 창립돼 울산지역에서도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운불련'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995년 창립돼 울산지역에서 활동해온 법륜회(회장 정태만)가 운불련의 울산지역회로 가입하고 이날 창립법회(사진) 를 연 것.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과 운불련 울산지역회 지도법사 목산(백양사), 정각(도솔암), 덕진(정토사) 스님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60여명의 운전기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운불련 울산지역회는 매월 1회 정기법회와 산행법회, 분기별 성지순례, 울산시립노인요양원 봉사활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탱화의 미적가치에서 각각의 의미까지 전달 **신비한 불화의 세계**

사찰에서 만나는 많은 종류의 탱화들, 그 안에는 다양한 불보살들이 각기 다른 형상으로 표현돼 있지만, 그 명호들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불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신비한 불화의 세계〉는 부처님을 주존(主尊)으로 하는 상단탱화, 보살을 중심으로 그린 중단탱화, 신중과 천왕 등을 형상화한 하단 탱화 등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종류별로 선보여 우리를 불화의 세계로 한걸음 다가서게 합니다.
소개되는 불화들은 박정자씨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명장의 붓끝으로 살아난 부처님 형상의 장엄미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박정자 지음 / 광진문화사 / 3만원 / 양장본 올 칼라 / 신국판

부처님을 친견하는 사불(寫佛) 수행

한국 최초 사불 교본 출간!! 붓끝 하나하나에 환희심을 담는 사불수행!! 이제 내안의 부처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1권】249쪽/50,000원 【2권】269쪽/55,000원 【3권】87쪽/20,000원 【4권】55쪽/15,000원

● 사불 교본 1,2,3,4 (책크기 : 4절 395 × 545mm)

1권 – 탱화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상단, 중단, 하단 독존도의 탱화초와 부모은중경, 팔상도, 비천상초를 그리고 채색할 수 있다.

2권 – 관음 32응신도와 42수관음, 천수천안관음의 출현, 53불을 매일 그리고 채색하여 예불할 수 있다.

3권 – 만다라와를 그리고 채색하여 초파일 연등에 붙이거나 법당이나 가정에서 실에 꿰어 부처님을 장엄할 수 있다.

4권 – 삼신불, 팔대보살, 시왕님을 그려보고 채색할 수 있다. 사찰에서는 지장재일에는 지장보살을, 관음재일에는 관세음보살을, 약사재일에는 약사여래를 그려 부처님 복장에 넣어 모시거나 법당 부처님 좌복에 모시고 기도하여 신심을 높일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 박정자

사불수행이란?

조금은 생소한 수행법이지만 이미 고려시대부터 사경과 함께 널리 행하여 그 찬란한 빛을 발했으나 억불정책의 과정에서 맥이 끊어지고 지금은 사경활동만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불수행은 사경보다 쉬워 남녀노소가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마음속의 부처님을 눈으로 확인하며 신심을 다져 가기 때문에 불자들의 신심을 마음 깊이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안의 부처와 하나가 되는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불이라는 또 다른 수행으로 삼천리 방방곡곡 우리들의 절마당에서 모든 불자님들이 천백억화신의 부처님을 사불하여 금수강산을 불국정토로 이루고자 발원하나이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만하 박정자 합장

주문전화 061)333-4472 (은행계좌에 입금 후 전화하시면 택배로 배달)
국민은행 073-01-0289-484 / 농협 637015-52-036279 예금주 박정자